

일본어판 「오도답파여행」을 쓴 것은 누구인가

하타노 세츠코

1. 시작하며

1917년 여름 『무정』의 연재를 끝낸 이광수는 경성일보사의 의뢰를 받아 조선반도 남부를 여행하고 조선어 신문 『매일신보』에 54회에 걸쳐 「오도답파여행」을 연재했다. 22년 후인 1939년 8월 이광수는 이 기행문을 「금강산유기」(1924)와 함께 『반도강산』이라는 제목의 간행물에 실고 서문에 이렇게 썼다.

전주에서부터 나는 『경성일보』에도 기행문을 쓰라는 청탁을 받아서, 거기서 목포까지 가는 동안에는 양 신문에 다 썼다. 그러다가 목포에서 적리(赤痢)에 붙들려서 중병(重病)하고 나서부터는, 즉 목포·다도해·경주 등이 기행문은 『경성일보』에 게재하는 분을 내가 쓰고, 『매일신보』에는 당시 거기서 집필하던 친우 심우섭 군이 번역하시기로 되었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는 얼마큼 문체의 차이가 있었다. 그것을 이번에 출판하게 된 때에는 내가 병중이므로 친우 최정희 여사가 수정하셔서 내 문체와 가깝도록 문체를 통일하게 되었다. 심·최 양우(兩友)의 이 글에 대한 노력을 내가 감사할 정도를 지나서 이 글은 3인 합작이라고 함이 옳을 것이다.¹⁾

인용문에 의하면, 이광수는 「오도답파여행」을 『매일신보』에 게재하는 한편 전주부터는 『경성일보』에도 일본어로 「오도답파여행」을 썼고, 목포에서 입원한 후 목포·다도해·경주의 기행문은 일본어로만 쓰고 그것을 심우섭이 조선어로 번역하여 『매일신보』에 게재했으며, 이 때문에 생긴 문체의 차이는 『반도강산』을 내면서 최정희가 이광수의 문체에 가깝게 통일시켰다는 것이다.

삼중당 『이광수전집』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최정희가 수정한 『반도강산』 판본임을 주요한은 전집에 실린 「해설」에서 밝히고 있다. 주요한은 이 「해설」에서 『매일신보』의 연재가 독자들의 환영을 받아 『경성일보』에서도 의뢰가 왔고, 이광수는 연재 도중에 일본어로도 쓰기 시작했다고 설명하고 있다.²⁾ 그러나 실제로 『경성일보』의 연재가 시작된 것은 매일신보사와의 공동명의로 예고가 나간 그 이튿날의 일이었다. 『경성일보』의 연재는 전부 35회이고, 그 가운데 전주까지의 연재분은 5회이다. 그러면 이 5회분은 도대체 누가 썼던 것일까.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와 호테이 토시히로(布帶敏博)가 조선 근대문학의 일본어 작품을 모은 『근대조선문학 일본어작품집』(전23권, 綠陰書房) 가운데 『1901~1938 평론·수필편』 제3권(2004)에는 경성일보판 「오도답파여행」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을 간행하기 바로 전해 호테이 토시히로는 조선학회에서 일본어판 「오도답파여행」을 소개하면서, 전주부터 일본어로도 썼다는 것은 이광수의 ‘착오’이고 실은 첫회부터 이광수가 썼을 것이라고 추론했다.³⁾ 호테이는 그 근거로 전주 도착까지의 연재 5회분의 문장과 전주 이후의 문장이 둘다 유려한 소로분(候文)

1) 이광수, 「서문」, 『반도강산』(영창서관, 1939), 『이광수전집』 16, 삼중당, 1963, p.315.

2) 주요한, 「해설」, 『이광수전집』 18, pp.518-519.

3) 布帶敏博, 「李光洙 「五道踏破旅行記」 小考 - 朝鮮語版と日本語版の比較研究」, 제54회 조선학회 발표문요지, 2003. 호테이는 2008년 8월 서울대학에서 열린 한국현대문학회에서 같은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호테이 토시히로, 「이중언어의 이광수 - 「오도답파여행기」론」, 『한국현대문학과 일본』, 한국현대문학회 제3차 전국학술발표대회자료집, 2008.

으로 씌어져 있어 문체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연재 도중 문체가 바뀌면 독자가 위화감을 품을 것이므로 이광수는 그때까지의 문체를 따랐을 것이고, 편집국도 당연히 배려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애초에 1917년은 이광수에게 잇을 수 없는 해였다. 이 해에 『무정』으로 일약 문명(文名)을 떨친 이광수는 한편으로 죽음에 이르는 병인 폐결핵이 발병하여 그것을 계기로 훗날 반려가 된 동경여자의전 학생 허영숙과 만났다. 『반도강산』을 간행한 해에 허영숙은 잡지 인터뷰 기사에서 이광수가 오도답파여행을 떠났을 때의 일을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고,⁴⁾ 이광수 자신도 「무부츠옹의 추억(無佛翁의憶出)」에서 이 무렵의 일을 회상하고 있다.⁵⁾ 「오도답파여행」은 이광수가 처음 신문에 발표한 일본어 문장이다. 더구나 당시는 『반도강산』 간행을 위해 모은 자료를 보았을 것이고, 자기가 쓴 것인지 어떤지 헷갈렸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 발표에서는 이광수의 기억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오도답파여행」이 일본어와 조선어 양쪽으로 씌어져 게재된 경위를 자세히 살피고 싶다.

2. 전주까지

『경성일보』에 연재된 「오도답파여행」의 35회분의 텍스트와 『매일신보』에 연재된 54회분의 텍스트를 별표(別表)로 정리하여 일련번호를 붙였다. 일본어판은 다음의 6부분으로 나뉜다.(별표 참조. 괄호는 일련번호)

- ① 전주 이전의 5회(1~5)
- ② 전주부터의 7회(6~12)
- ③ 목포에서 쓴 1회(13)
- ④ 다도해 순례의 4회(14~17)
- ⑤ 진주·통영 기행문 5회(18~22)
- ⑥ 경주에서의 13회(23~35)

이광수가 전주에 도착하기 전의 일본어판 연재①은 「호서로부터」 3회와 「아름다운 경치, 그 삼개」 2회를 포함하여 5회분이다. 이 부분은 이광수가 조선어로 써 보내온 「제1신」에서 「제7신」까지를 신문사의 누군가가 일본어로 번역하여 정리했을 것이다. 당연히 내용도 사용된 어휘도 공통적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역시 다른 곳이 있다.

「호서로부터」 제1회에는 조선어 「제1신」과 「제2신」의 내용이 들어 있는데, 시마무라 호게츠(島村抱月)에 대해 서술하는 태도에 현저한 차이가 보인다. 남대문역을 출발한 이광수는 같은 기차에 함께 탔던 시마무라 호게츠와 인터뷰를 하고 「제1신」에 자세히 보고하고 있다. 문학이란 인간의 ‘사상 감정’을 ‘어(語)와 문(文)’으로 표현한 것인데, 조선어의 문법과 문체는 아직

4) 허영숙, 「나의 자서전」, 『여성』, 1939.2., p.27. 허영숙은 이광수의 체력이 여행을 견디지 못할 것을 걱정하여 그를 은사에게 진단받게 하고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떠나보냈다. 그랬는데 목포에서 발병한 것을 알고 매우 걱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5) 李光洙, 「無佛翁의憶出」 1·2, 『경성일보』, 1939.3.11., p.12. 『近代朝鮮文學 日本語作品集 1939~1945』 評論·隨筆篇 3 수록. 다만 나가무라 켄타로(中村健太郎)에게서 의뢰 편지를 받은 시기를 『개척자』 연재 무렵이라고 한 것이라든가, 경성일보의 마츠오(松尾) 편집국장이 초호(初號)) 3단으로 2면의 상단 기사로 내주었다든가(사실과는 약간 다르다), 토쿠토미 소호가 직접 칭찬해 주었다는 내용이 실제 문장에는 보이지 않는 등, 이광수의 기억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꽤 보인다.

완성되지 않은 듯하니 우선 ‘어문(語文)을 정돈’하고, 이에 부합하게끔 소설, 시, 극 등의 제 형식을 이식하여 ‘신문학 건설’에 힘써야 할 것이라는 호계츠의 진지한 의견은 『경성일보』의 「호서로부터」에는 몽땅 생략되어 있고, 대신 강조되어 있는 것은 스마코(須磨子)의 양녀까지 동반한 일행의 피곤한 모습이다. “자신들은 예술을 위해서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곁에서 보면 역시 지방순회공연 배우로서 차라리 딱한 느낌이 듭니다”와 같은 감상은 정말이지 예술과는 인연이 없는 사람이 ‘옆에서’ 느낀 감상이지 예술에 몸을 담근 이광수의 감상으로는 간주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높다랗게 쌓인 짐을 보고 “그 속에 카츄사의 가발과 의상도 들어 있을 것을 생각하면 어쩐지 우스워집니다”와 같은 얼버무린 표현도 시마무라에 대한 경의로 가득한 「제1신」과는 어조를 달리한다.

백제의 옛 도읍 부여에서의 견문을 미문(美文)으로 잇달아 쓴 『경성일보』의 제4회와 5회 「아름다운 경치, 그 감개」의 내용은 『매일신보』의 「제5신」에서 「제7신」까지에 해당한다. 몇 단락의 서두 부분을 2행 표제로 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경성일보』의 기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형식이다. 아마도 일본어문을 작성한 인물이 이 형식을 선호했을 것이다. 문체의 특징으로 ‘향내를 맡던 것(薫りたるもの)’ ‘전율하던 것(慄えたるもの)’ ‘그 밤(其の夜)’ ‘이 기와(此の瓦)’ 등 영탄을 위한 종지 체언이 많이 사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광수의 다른 일본어문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그 외에도 가증리(佳增理)에 있는 유사(有史) 이전의 묘지를 감정한 학자 구로이타 카츠미(黑板勝美) 박사를 ‘토리이(鳥居) 씨라는’이라고 잘못 쓰고 있는 것도 일본문 작성자의 실수일 것이다.

그렇다 해도 ‘오도답파여행기자 이광수’라는 필명을 붙여 연재를 시작해 두면서 『경성일보』는 왜 이광수에게 쓰게 하지 않았던 것일까. 편집국으로서는 이광수의 일본어 실력은 물론 조선인 독자를 대상으로 한 그의 논설과 소설이 호평을 얻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일본인 독자를 대상으로 한 문장을 쓸 수 있을지 어떨지 불안했을 것이다. 일본어 문장을 잘 쓰는 것과 일본인 독자에게 받아들여지는 문장을 쓰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한 한 일본인 직원이 일본인 독자의 기호에 맞춰 이광수의 문장을 다시 쓴다면 안전하다. 그래서 보내온 원고를 그곳에서 일본어로 번역하여 정리하면 된다고 간단히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리 다시 쓰기가 의외의 노력을 필요로 한 것은 아니었을까. 실제로 부여에 관한 이광수의 문장을 단시간에 그런 정도의 일본어 미문(美文)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대단한 일이었을 것이다. 편집국은 부담을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전주부터 이광수에게 쓰게 한 것이 아닐까 필자는 추측한다.

편집국은 처음 5회분에서 이광수에게 ‘본보기’를 보였다고도 할 수 있다. 호계츠의 문학이론을 소개하는 이광수의 필치에는 다분히 계몽적인 냄새가 떠돌고 있다. 그러나 조선 반도의 일본인 독자는 그런 것은 바라고 있지 않고 예술에 무관심한 사람으로서는 호계츠도 ‘딱한 지방순회공연 배우’에 지나지 않음을, 편집국은 다시 쓰기를 통해 이광수에게 뼈저리게 깨닫도록 했던 것이다. 소로분(候文)이라는 형식에 대해서는 도중에 이광수에게 이어가도록 할 것을 상정했던 편집국이 이광수가 편지에서 상용하고 있는 소로분을 취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광수와 사전에 상의한 후 그 문체로 결정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처음 5회분은 쓴 것은 누구였을까. 부여에서부터 조선어 원고를 기초로 해서 그런 미문(美文)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일본어 원어민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당시 경성일보에는 나카지마 츠카사(中島 司, 中島生), 오쿠다 나오타카(奥田直毅, 鯨洋), 후지무라 츠스케(藤村忠助, 藤村生) 등 외에 편집국장 격인 나카무라 켄타로(中村健太郎, 三笑居士)가 있었다.⁶⁾ 조선어가 능숙한 것은 나카무라였지만, 이광수의 원고는 한자어가 많은 국한문혼용

문으로 씌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선어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번역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즉 유감스럽게도 누가 썼는지 현재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의 결론이다.

3. 전주부터

이광수가 일본어로도 쓰라는 통지를 받은 것은 7월 2일, 이리 혹은 전주에서의 일이었다고 추측된다. 전주에 도착한 뒤 이광수는 맹렬한 기세로 조선어 「전주에서」와 일본어 「호남으로부터」를 쓰기 시작한다②. 이들 텍스트를 대조하면, 어느 것이 어느 것의 저본이고 번역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어려워 처음부터 각각의 언어로 썼다고 생각된다. 전형적인 예는 이리가 어떤 도시인지를 시적으로 표현한 부분일 것이다. “아직 눈도 코도 없고, 핏덩어리라고나 할 수 있을까. 나날이 커갈 뿐 형태도 갖추어지지 않은” “괴물”(『경성일보』), “장차 그림을 그릴 양으로 여기저기 회구(繪具)를 찍어바른 듯하여 아직 일정한 형태도 없는 두루뭉술”(『매일신보』)과 같이 동일한 내용이 전혀 다른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어 각각의 언어로 창출된 문장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주부터의 7회분에서는 또한 내용면에서도 조선인의 상업이 떨치지 못하는 이유를 ‘내지인’의 태도로 귀결지어 개선을 요구하는 등 조선어판에는 없는 언급이 보인다.

이리 다음에 들른 광주와 나주에서는 환영회와 견학이 이어져 원고를 쓸 여유가 없었던 듯하다.7) 목포에서 적리(赤痢)로 입원한 이광수는 그 뒤 가까스로 『매일신보』에 「광주에서」 3회와 「목포에서」 1회를 쓰고 있다. 당시 일본어로 쓰지 않았던 것은 체력과 기력이 바닥났기 때문일 것이다.

4. 입원 이후 - 목포·다도해

이광수가 병상에서 일본어로 쓴 사죄의 글은 편집국에 있던 심우섭에 의해 조선어로 번역되어 『경성일보』와 『매일신보』에 동시에 게재되었다③. 보는 대로 심우섭의 번역은 한문을 그대로 한자어로 쓴 거의 직역이다.

緑蔭深きフレンチ病院の病床より一筆啓上仕候。十二日夕、羅州より木浦駈着。多数人士の出迎を受申候。途中、腹痛を覚え、下痢を催し、具合悪しく勸めらるゝ儘入院治療致すことに致候。(13 「湖南より」)

6) 조선에서 귀국한 후 호계츠는 『와세다문학(早稻田文學)』(1917.10)에 게재한 「조선 소식 나의 페이지」(朝鮮だより 僕のページ)에서 경성에서 ‘최군, 진군, 심군, 김군, 현군, 그 외 3,4명’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던 일을 쓰고 있다. 모두가 아베 미츠이에(阿部充家)의 신봉자였다고 한다. 호계츠는 조선에는 시도 소설도 극도 없다고 생각하고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참된 감정을 근본으로 한 문예를 만들어내도록 하고 싶다”고 바라고 있다. 그러나 그가 염두에 둔 언어는 일본어였다. “요컨대 나는 순수한 조선의 전통을 향유한 젊은이들 가운데 문학적 가치가 있는 일본어로 참된 조선 민족의 영혼을 불러일으켜 그것과 대면하고 싶다. 조선인의 손으로 이루어진 참된 문예를 보고 싶다(강조 인용자)”라고 그는 쓰고 있다. 우연하게도 호계츠는 이제 막 조선문학 최초의 근대장편을 낳은 조선인 이광수와 만났던 것이다. 그러나 이광수가 보고하고 있는 인터뷰의 내용은 「조선 소식」의 호계츠의 사고와는 약간 다르다. 이광수가 자신의 생각을 제멋대로 투영시킨 것일지도 모른다.

7) 심원섭, 「1910년대 중반 일본인 기자들의 조선 기행문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48, 한국문학연구학회, 2012, 2,3장; 심원섭, 「일본제 조선 기행문과 이광수의 「오도답파여행기」」, 『현대문학의 연구』 52, 한국문학연구학회, 2014; 정진석, 「제2의 조선총독부 경성일보」, 『경성일보』 1, 한국도서센터, 2005, pp.iii-xi.

綠陰이 깊은 후란치 病院 病床에서 一筆 聲上하나이다. 十二日 夕 本郡 到着, 郡守 以下 多數 人士의 出迎을 受하였는데 腹病으로 因하여 即時 入院하였소이다.(17 「목포에서」)

이어서 심우섭은 이광수가 일본어로 쓴 「다도해 순례」 4회분을 조선어로 번역하여 『매일신보』에 게재했다④.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같은 집필 날짜의 기사가 『경성일보』의 3,4일 뒤에 「매일신보」에 게재되고 있는데, 이것은 번역을 위한 시간차로 보인다. 일례를 들어둔다.

手を振り、帽子を振り、頭を振りて、別を惜しまるゝ木浦の人士を後にして、我が順天丸は徐徐と高い島の屏風の如き絶壁の倒影を踏み砕き、天下の絶景多島海指して走り出で候。(14 「多島海巡禮」, 집필일 7.23/게재일 7.26)

手を 擧하며 帽子를 擧하며 頭를 振하여 別을 惜하는 木浦의 人士를 後로 하고 我順天丸은 徐徐히 高島の 屏風과 如한 絶壁의 倒影을 踏過하여 天下의 絶景 多島海를 指하고 走出한다.(22 「다도해(一)」, 집필일 7.23/ 게재일 7.29)

5. 「영남으로부터」와 「통영으로부터」

다도해 순례를 마친 뒤 이광수는 진주와 통영에서 『경성일보』에 「영남으로부터」와 「통영으로부터」를, 『매일신보』에 「통영에서」와 「진주에서」를 썼다⑤. 『매일신보』에 쓴 조선어문은 물 흐르는 듯한 명문(名文)으로 심우섭의 직역과는 또렷이 달라 이광수 자신이 쓴 것이라고 판단된다. 통영에서 한산도를 찾은 대목을 보자.

署長과 卞警部の 好意로 警備船을 타고 閑山島 구경을 갔다. 兪郡守, 卞警部와 本社의 松 分局長의 同伴이다. 天無雲 水無波한데 이름조차 곱다란 警備船 第四鵠丸은 땅밀까지 보일듯이 透明한 綠水를 가볍게 헤친다. 航行 約 四十分에 병목 같은 水門을 들어가니 橢圓形의 透明한 灣內에 두어 隻 漁船이 떠있고 瓶 밑이라 할 만한 곳에 오목 솟은 半島가 鬱蒼한 樹林 속에 묻혀있다. 山 모양이 어찌 그리도 妙하며 물빛이 어찌 그리도 高운고. 即時 端艇을 타고 制勝堂을 向할 제 深林에 철이 이름인지 매암의 소리가 噪噪하다. 斷崖를 더위잡아 水軍提督 李忠武公의 碑를 拜하고 烏鵠이 지저귀는 古祠 곁으로 良久히 徘徊하면서 堂을 지키는 老人의 說話를 半은 듣고 半은 못들었다.(31 「통영에서」)

加藤署長の好意にて、警備船第二鵠丸にて閑山島に向う。名将李舜臣の功績を語る制勝堂を見んとて候。風穩かに波静かなり。梟の如く可愛き警備船は、迂るが如き碧波の上を走ること約十分。瓶の口の如き水門を入れば、腹の膨れたる花瓶の形をなせる小湾あり。湾の南端にして瓶の底に当る所、雑木茂れる円錐状の岬が制勝堂のある処にて候。端艇を漕いで絶壁の下に着け、樵道を攀じて柱傾ける制勝堂に入る。長く修繕の手を絶ちて、壁は崩れ丹青は剥がる。堂を守る老翁出で来りて蓆を薦め、問うが儘に種々と語り出候。(22 「嶺南より」)

접선으로 밑줄 그은 부분은 일본인과 조선인 각각의 독자를 위해 따로 쓴 것이다. 또 밑줄 부분은 동일한 행동이나 대상을 서술하면서도 표현이 달라 한쪽이 한쪽의 원본이고 번역이 아니라, 각각의 언어로 사고되어진 문장임을 보여준다. 다도해에서 체력을 회복한 이광수는 또 양쪽의 언어로 쓰기 시작했던 것이다. 다도해 이후 『매일신보』와 『경성일보』의 게재 순서가 역전되어 조선어판이 먼저 게재되어 있는 것도 이 사실을 방증한다.

그런데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게재 순서와 집필 날짜에 혼란이 있다. 첫째, 일본어판에서는 진주-통영 순으로 게재되었고, 조선어판은 그 역순으로 게재되어 있다. 이유는 분명치 않다. 어쩌면 원고가 늦어진 탓이었을지도 모른다. 둘째, 진주와 통영에서의 집필 날짜가 다르다. 기사의 말미에 일본어판의 집필 시기로 되어 있는 8월 초에 이광수는 이미 현지에 없었다. 어쩌서 이런 혼란이 생긴 것일까. 그 원인은 다도해 이후의 여정을 검토하면 분명해진다.

삼천포에 도착한 이광수는 우선 진주로 향하고 이어서 통영에서 이순신의 유적을 찾는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마산에 도착하며, 그대로 삼랑진에서 부산을 통과하여 동래온천으로 직행한다. 그것은 매일신보사와 경성일보사가 공동주최했던 '동래 해운대 탐량단'에 합류하기 위해서였다. 탐량단에 동행했던 아베 미츠이에와 동래에서 재회한 이광수는⁸⁾ 온천에서 쉼 뒤 해운대에서 3일 동안 휴가를 갖는다.⁹⁾ 그리고 재차 부산에 들렀다가 마산, 대구를 통과하여 마지막 목적지인 경주로 향했던 것이다.

일본어판의 집필 날짜로 되어 있는 8월 초의 며칠간 이광수는 해운대에서 휴가를 보냈다. 그렇게 체력을 회복시키면서 이광수는 일부 써두었던 기행문 「영남으로부터」와 「통영으로부터」를 이 해운대에서 완성시켰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집필 장소는 원고를 쓰기 시작한 진주와 통영으로, 집필 시기는 원고를 마무리한 8월 초로 해두었던 것이다. 이런 변칙적인 형식을 취함으로써 이광수는 집필 시기와 장소를 기재하는 자신의 습관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했을 것이다.

6. 경주에서

8월 15일 자전거로 경주 답사를 시작한 이광수는 18일까지 경주와 불국사를 정력적으로 돌아다니며 「신라의 옛 도읍에 노닐다」 전 13회를 『경성일보』에 게재한다^⑥. 이 기사들은 다시금 심우섭의 번역을 거쳐 「서라벌에서」라는 제목으로 『매일신보』에 게재되었다. 4일간의 여정에서 원고 13회분을 쓰는 강행군이라서 이광수는 조선어로 쓸 만한 기력이 한계에 도달했을 것이다. 동경에서 결핵이 발병했고, 또 목포에서 적리(赤痢)에 붙들려 입원했던 이광수에게 이 여행은 체력과의 싸움이였다. 여행을 계속하는 것이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 일이었는지는 기행문 곳곳에서 전해진다. 다음을 마지막 회의 마지막 부근의 한 대목이다.

明活城も南山城も共に歴史上重要なる古蹟には相違なかるべきも、日己に暮れて身体の疲労又其の極に達す。柏栗寺より十数町東にある昔脱解の陵さえも参拜する勇氣はなく、況してや西川をてゝ女峰下なる金庾信の墓(一説には金仁問の墓なりと云う)は文武王陵と規模略相同じと聞きたるのみにて満足せざるを得ず候。(35 「新羅の旧都に遊ぶ」(13))

8) 이광수, 「동래온천에서」, 『매일신보』, 1917.8.8.

9) 이광수, 「해운대에서」, 『매일신보』, 1917.8.10.

明活城, 南山城 共히 歷史上 重要な 古蹟됨에 無違하나 日己暮하고 身體의 疲勞도 亦 其極에 達하였고 栢栗寺로부터 東方 四五里地의 昔脫解王陵에도 參拜할 勇氣가 없으니 況西川을 隔하여 玉女峰 下 金庾信墓(一說에는 金仁問의 墓라 함)는 文武王陵과 規模가 略相同하다는 말만 듣고 滿足치 아니할 수 없다.(54 「서라벌에서(13)」)

단행본을 내면서 이광수는 이렇게 생경한 직역문을 고치려고 했지만, 다시금 병 때문에 이루지 못하고, 이번에는 최정희의 손을 빌리게 된다. 다음은 수정판의 최정희의 문장이다.

明活城, 南山城도 함께 歷史上 重要な 古蹟임은 틀림없으나, 해가 지고 身體의 疲勞도 못 찾고 栢栗寺로부터 東方 半里 가량 되는 昔脫解王陵에도 參拜할 기운이 없다. 그러므로 玉女峰 아래 金庾信墓에도 못 갔다. 그 墓라와 文武王陵과 비슷하다 함을 듣고 구경한 거나 마찬가지로 滿足한다.¹⁰⁾

이광수를 존경한 작가 최정희가 이광수의 문체를 모방한 흥미진진한 자료이다.

7. 끝내며

『무정』에서 유서를 남기고 모습을 감춘 영채를 좇아 평양에 온 이형식은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의 일을 떠올리고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때에 형식은 열한 살이라. 그러나 평양이란 이름과 평양이 좋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오 평양이 어떠한 도회인지 평양에 모란봉 청류벽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 형식은 그때에 사서와 사략과 소학을 읽었었다. 그러나 그때에는 학교라는 것도 없었으므로 조선지리나 조선 역사를 읽어본 적이 없었다. 형식은 생각하였다. 「문명한 나라 아이들 같으면 평양의 역사와 명소와 인구와 산물도 알았으리라」(『무정』 56절)¹¹⁾

나카무라 켄다로에게서 기행문을 의뢰하는 편지를 받았을 때, 이광수는 이제 막 썼던 이 대목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신문에 기행문을 쓰는 것은 조선인들에게 조선 각지의 ‘역사와 명소와 인구와 산문’을 알게 할 좋은 기회였다. 허영숙의 걱정을 무릅쓰고 여행을 결심한 이광수의 마음에는 이 여행이 조선의 문명화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경성일보』에 일본어로 기행문을 쓴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광수는 항상 자신의 행동에 대의명분을 내세우는 버릇이 있었으므로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준비했을 것이다. 조선인의 입장에서 본 조선의 실정을 일본 당국에 알리고 조선의 현상 개선을 호소하는 한편, 조선의 역사 깊음과 자연의 근사함을 일본인 독자에게 알게 하기 위해 썼다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여기에는 자기의 재능을 세상에 과시하고 싶은 젊은 이다운 명예욕과 야심도 있었겠지만, 그의 행동이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은 의심할 수 없다. 그 사명감과 야심의 동거가 총독부의 어용신문에 이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연구자가 많고 이 점을 확실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바로 전해 가을 아베 미츠이에와 만나 「매일신보」에 논설을 발표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광수는 그 위험을 자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총독부의 기관지에 쓰는 것은 상대에게 이용되면서 상대를 이용하는 줄타기와 같은 행위였다.

10) 이광수, 「오도답파여행」, 『이광수전집』 18, 삼중당, 1963, p.195.

11) 이광수, 『무정』, 『이광수전집』 1, 삼중당, 1963, p.145.

일본어판 「오도답파여행」에서 이광수는 총독부의 '신정(新政)'이 성공하고 있음을 칭찬하는 한편, 조선 농촌의 궁핍과 기아 및 지주의 착취, 조선 상인과 일본 상인 간의 반목 등도 써 넣었고, 또한 조선인의 예술적 능력을 산업에 결부짓도록 하는 제언도 내놓았다. 신문을 통해 시정자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사람들의 생계의 개선에 반영시킬 것을 바란 이광수에게 이 줄타기는 행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협상(bargaining)'이었다고 생각된다.¹²⁾

「오도답파여행」의 일본어판과 조선어판 두 가지를 동시에 쓰는 것이 이광수에게 준 제일 큰 것은 일본인 독자와 조선인 독자를 대상으로 쓰는 경우 입장(stance)의 변경을 실제로 체험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이광수는 이때 비로소 본격적으로 일본인 독자와 마주 향했다. 독자들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알지 못하며, 무엇을 좀더 알고 싶어하고 무엇을 알고 싶어하지 않는가. 그들은 어떤 것을 읽고 싶어하고 있는가. 독자의 요구를 선취하여 쓰는 저널리스틱한 자세는 나중에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지내면서 대중의 인기 작가로서 군림하는 이광수의 창작 방법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그것은 또한 사반세기 후 이광수가 다시 일본어와 조선어로 글을 쓰게 되었을 때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가의 문제와도 이어진다. 젊은 시절 몸에 벤 입장 변경의 기술을 그는 줄곧 지니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参考文献]

- 柴崎力也 (1983) 「徳富蘇峰と京城日報」、『日本歴史425』
- 김현주 (2001) 「근대 초기 기행문의 전개 양상과 문학적 기행문의 '기원」、『現代文学의 研究16』、韓國文学研究学会
- 布袋敏博 (2003) 「李光洙 <五道踏破旅行記> 小考－朝鮮語版と日本語版の比較研究」、第54回朝鮮学会発表文要旨
- 並木真人 (2003) 「朝鮮における「植民地近代性」・「植民地公共性」・対日協力」、『国際交流研究5』
- 並木真人 (2004)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公共性」の検討」、『東アジアの公論形成』、東大出版会
- 鄭晋錫 (2005) 「제2의 朝鮮總督府 京城日報」、『京城日報』第1卷、韓國圖書センター
- 李鍊 (2006) 「朝鮮總督府の機關紙『京城日報』の創刊背景とその役割について」、『メディア史研究21』
- 並木真人 (2007) 「大衆の国民化と民族化－植民地期朝鮮の事例から」、『国際交流研究9』
- 정혜영 (2009) 「<오도답파여행>과 1910년대 조선의 풍경」、『現代小説研究40』
- 布袋敏博 (2008) 「이중언어의 이광수 <五道踏破旅行記> 론」、『韓國現代文学會第3次全國學術大發表大會資料集』
- 咸苔英 (2011) 「1910年代朝鮮總督府機關誌と徳富蘇峰」、『アジア文化研究37』、国際基督教大学
- 김재관 (2011) 「<오도답파여행>에 나타난 일제 식민지 교통 체계 연구」、『語文論集46』、中央語文学會
- 심원섭 (2012) 「1910年代中盤 日本人記者들의 朝鮮紀行文 研究」、『現代文学의 研究48』、韓國文学研究学会
- 沈元燮 (2014) 「일본제 조선기행문과 이광수의 <오도답파여행>」、『現代文学의 研究52』、韓國文学研究学会

12) 並木真人(2003, 2004, 2007) 참조.